

오승우 화백·김영중 조각가... 대한민국 명품전으로 새해 연다

광주시립미술관 2016년 전시 다채



김영중 작 '구원'

5~8월 현대미술 'Brilliant Memory'전
6~7월 중국 광저우에서 '문화도시광주전'
9~11월 한·중·일·대만 작가 4개국 특별전
12월~ 하정웅 청년작가 초대전 '빛 2016'



오승우 화백

소나무 사진작가
배병우 초대전, 북
유럽 디자인전
'NORDIC SPIR-
IT' 등 지난해 굵직한
기획전을 선보였던
광주시립미술관
(관장 조진호)이 올
해도 다양한 전시를
준비했다.

미술관은 오승우 화백의 작품으로 새해를 연다. 2월말에서 4월초까지 본관 1·2전시실에서 국내 대표적인 유명작가의 작품을 소개하는 대한민국명품전을 개최, 오승우 화백을 초대했다.

같은 기간 3·4전시실에서는 원로·작가 작가 초대전으로 한국 1세대 현대 조각가 고(故) 김영중 작가의 작품을 소개한다.

가정의 달인 5월부터 8월까지 1·2전시실은 온가족이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뀐다. 현대미술을 소개하고 체험해보는 'Brilliant Memory'전을 선보인다. 3·4전시실에서는 5·18기념문화재단과 공동 주최로 태국, 인도네시아, 홍콩 등 아시아 5개국의 민중미술을 만나보는 '민주인권평화전'이 준비돼 5월의 의미를 되새겨본다.

이외에 광주와 아시아 지역 청년미술인들의 네트워크 구축 확립을 위한 '아시아 현대미술 연대전'이 광주비엔날레 제1전시실에서 5~6월 열린다. 6~7월에는 광주지역 작가의 해외진출을 도모하는 '문화도시광주전'이 자매결연 20주년을 기념



광주시립미술관에서 지난달 3일까지 진행된 '도시에서 서식하다'전을 살펴보는 관람객들. 시립미술관은 올해도 오승우 초대전 등 다양한 전시를 진행한다.

〈광주시립미술관 제공〉

해 중국 광저우에서 개최된다.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가을(9월초~11월말)에는 한국, 중국, 일본, 대만 작가가 참여하는 아시아4개국 특별전이 추진된다. 이 전시는 4개국에서 돌아가며 개최하며 내년은 대만 타이베이에서 열릴 예정이다.

같은 기간 해외유명작가전이 추진된다. 우리지역 출신으로 독일에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정영창 작가를 초대한다. 정 작가는 외국인 최초로 도르트문트에서 창작스튜디오를 지원 받았으며 독일 초등학교 교과서에 작품이 실리는 등 해외에서 인정받고 있다.

겨울시즌(12월~2017년 2월)에는 전국의 공립미술관들과 연계해 청년미술인을 발굴·지원하는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16'이 진행된다. 현재 열리고 있는 '빛 2015'는 2월 14일까지 1·2전시실에서 개최된다.

하정웅 명예관장의 컬렉션 특별전으로는 일본 오사카에서 활동하는 '카와이 쇼자부로'전(2월2일부터 6월5일), 베트남전쟁, 히로시마 원폭투하, 5·18 등 굵직한 주제를 다룬 재일교포 '송영옥'전(6월14일~10월16일)이 준비돼 있다.

상록전시관은 2월6일부터 3월13일 중국 북경창작센터 제 6·7기 입주작가들의

■ 2016년 광주시립미술관 전시사업

□ 본관 기획전시

전시명	날짜
대한민국명품전	2월~4월
원로·작가작가 초대전	2월초~4월말
Brilliant Memory	5월~8월
민주인권평화전	5월초~7월말
아시아현대미술연대전	5월~6월
문화도시 광주전	6월~7월
2016 빛 조각전	6월~2017년 5월
해외유명작가초대전	9월~11월
광주비엔날레기념 아시아4개국특별전	9월초~11월말
하정웅청년작가초대전 "빛 2016전"	12월~2017년 2월
하정웅컬렉션 "카와이 쇼자부로"전	2월2일~6월5일
"송영옥"전	6월14일~10월16일
신소창품 2015전	2월2일~7월3일

□ 상록전시관 주요전시

전시명	날짜
2014-2015 북경칠주	2월6일~3월13일
봄 기획전 : 백민 조규림과 가족전	3월19일~5월1일
청년작가초대, 신창문전	5월28일~7월3일
올해의 작가, 이준석전	10월25일~12월11일

귀국발표전 성격인 '2014-2015 북경칠주'로 한해를 시작한다.

3월19일부터 5월1일까지는 봄기획전 '백민 조규림과 가족'이 계획됐다. 보성 군립백민미술관장으로 재직 중인 조 화백을 비롯해 예술가의 길을 걷고 있는 자녀 조현, 조솔, 머느리 박민광 작가가 회화와 조각 작품을 선보인다.

또 올해의 청년작가로 선정된 신창문 작가 초대전(5월28일~7월3일), 올해의 작가로 선정된 이준석 작가의 초대전(10월25일~12월11일)도 개최된다.

그밖에 빛고을 광주를 시작예술로 표현한 미술관 야외 조형작품 전시인 '2016 빛 조각'전도 지난해에 이어 6월부터 내년 5월까지 계속된다. 문의 062-613-71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백색 도자기 위에 그린 그림 '민서정 포슬린아트' 개인전

13일까지 장덕도서관 갤러리

접시, 물병, 찻잔 등 백색의 자기 위에 그려진 다채로운 색깔의 이미지가 눈길을 끈다. 먹음직스런 과일부터 새침한 표정의 소녀, 금방이라도 달려들 것 같은 호랑이가 관람객들을 맞이한다.

오는 13일까지 광산구 장덕도서관 갤러리에서 '민서정 포슬린아트' 개인전이 열린다. 광주민족미술인협회의 후원으로 열리는 이번 전시는 포슬린아트 작품 20여점을 선보인다.

포슬린아트란 유약처리가 된 백색 자기 위에 그림을 그리는 예술이다. 그리고 굵은 과정을 반복하며 영구히 지워지지 않을 뿐 아니라 깊이 있고 섬

세한 표현방법이 특징이다. 국내에서는 생소하지만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는 왕실이나 귀족들을 중심으로 유행했다.

민씨는 이번 전시에서 고전적인 꽃무늬 식기부터 미국 할리우드 영화배우가 그려진 팝아트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작품까지 다양한 종류를 선보인다.

민씨는 호주 포슬린아트티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지난해 한국에 총 특별 초대전, 포슬린페인팅 ART 스쿨 회원전 등에서 전시를 가졌고 홍콩 컨템포러리 아트페어 등에 참여했다. 문의 010-7181-3400.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연극협회 제11대 회장에 정순기 극단 '터' 대표

부회장에 이영민·원광연씨

광주연극협회는 제30회 정기총회를 열고 제11대 회장으로 정순기(49) 극단 '터' 대표를 만장일치 추대했다고 6일 밝혔다. 3년간 협회를 이끌었던 정순기 회장은 오는 2018년까지 3년 더 연극협회를 이끌게 됐다. 이날 총회에서는 또 부회장으로 이영민, 원광연씨를 선출했다.

정순기 회장은 "만장일치란 화합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어려운 자리를 맡겨 주셔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최선을 잃지 않고 광주연극 발전에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정회장은 또 "시대가



정순기 대표

어렵고 힘들 때 예술과 연극은 꼭 있어야 한다"며

"앞으로 광주시민들의 삶에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도록 연극협회가 질 좋은 작품들을 꾸준히 공연하겠다"고 말했다.

정 순기 회장은 '막자타고 노을 보다' 등 100여 편의 연극에 출연했으며 광주예술 대상, 진주개천예술제 연기 금상, 광주연극협회 연극인상 등을 수상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 12일 라마다플라자 호텔

광주여성단체협의회(회장 문진수·사진)는 오는 12일 오전 11시 라마다플라자 광주 호텔 4층 연회장에서 '2016 광주여성지도자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다.

이날 행사에서는 윤정현 광주시장,



문의 062-363-9401,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 박해자 국회의원 등이 신년사를 하며 케익 커팅과 축가가 이어진다.

광주시립미술관 사진전문전시관 5월에 첫선

청년예술지원센터 상반기 추진

광주시립미술관이 지난해부터 추진한 사진전문전시관이 올해 5월 첫선을 보일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 부지에 자리한 옛 광주시립미술관을 재탄생시킨 사진전시관은 광주의 정체성을 담은 역사적 사진

자료를 수집·보존하는 공간으로 활용될 계획이다. 미술관은 1층 전시실 일부(901㎡)를 우선 리모델링해 문을 열고 사진전문 학예연구사도 채용할 예정이다.

또 남구 사직동에 위치한 옛 광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자리에 청년예술지원센터(3층 약 1000㎡ 규모)를 올 상반기 안으

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는 청년작가들의 작품 활동과 교육을 지원한다. 또 청년작가들을 마을가꾸기 사업 등과 연계시키는 방안도 추진한다. 그밖에 건물 일부를 카페로 활용해 양림동 돌레길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찾아 오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외에 미술관 본관 앞 매점 건물을 할

용한 창작스튜디오도 내년 상반기까지 추진된다. 외국 작가들을 입주시켜 광주 지역작가들과 작품활동을 교류하는 공간으로 쓰인다.

서울시 종로구 사간동에 위치한 갤러리 GMA도 전담도와 함께하는 공간으로 바뀐다. 올 하반기에 임대계약이 끝나는데로 대폭 확장된 공간(330㎡ 이상)으로 이전에 전담도와 공동 운영하게 된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6 광주일보 스키캠프

2016년 1월 27일(수) ~ 28일(목) 무주리조트

모집대상 : 초·중·고등학생
참가비용 : 195,000원
제공사항 : 숙박(가족호텔 1박), 3식 제공, 스키렌탈, 스키강습 2회, 리프트이용권(후야권, 오전권), 스키장 보험 및 여행자 보험, 왕복차량

※ 일반부 : 별도 문의

1월 27일(수)	1월 28일(목)
08:00~08:20	집합 / 인원점검 후 출발
08:20~11:30	버스로 이동, 캠프장소 도착
11:30~12:00	인원파악, 숙소배정 및 짐정리
12:00~13:00	점심식사(도시락지참)
13:00~17:30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17:30~19:00	석식 및 휴식
19:00~21:00	야간 스케이팅(리프트포함)
22:00~	점심 및 취침
	06:30~ 기상 / 세면
	07:30~08:30 즐거운 아침식사
	08:30~12:30 장비대여 / 스키강습(리프트포함)
	12:30~13:00 장비반납 / 점심식사
	13:00~16:30 인원 점검 후 출발
	16:30~ 귀가

※ 스키복, 보드 렌탈시 본인부담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투어넷 여행사
문의 | 062-225-2544, 062-220-0555